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카페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 ② 하늘이 맑고 파래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 ③ 그들은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도착했다.
- ④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한다.

문 2. 밑줄 친 단어가 다의어로 묶인 것은?

- ① 그는 의심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눈이 튄다.
- ② 애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
- ③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
아저씨의 거칠던 성질이 요즘은 많이 죽었다.
- ④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배가 출항하지 못한다.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문 3. 다음에서 설명한 공감적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섭적 행위이다.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 ① 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 음, 요즘 날씨가 때문에 더 그럴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
- ② 가: 시험 날씨가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나: 안정감을 가져 봐.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 ③ 가: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나: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
- ④ 가: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길 하니? 마음을 다 잡고 일단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구나.

문 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이처럼 먼 대 면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먼 대 면 소통이다.

(다)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전신, 전파, 인터넷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
(라) 먼 대 면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① (나) - (라) - (가) - (다)
- ② (나) - (라) - (다) - (가)
- ③ (라) - (가) - (나) - (다)
- ④ (라) - (나) - (다) - (가)

문 5.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天高日月明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草木生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도다.
春來梨花白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고
夏至㉡靑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도다.
㉢黃菊發	가을은 서늘하여 누런 국화가 피고
冬寒白雪來	겨울은 차가우니 흰 눈이 내리도다.

- | | | |
|------|----|----|
| ㉠ | ㉡ | ㉢ |
| ① 至厚 | 木葉 | 科涼 |
| ② 地厚 | 樹葉 | 秋涼 |
| ③ 地后 | 樹葉 | 私諒 |
| ④ 地侯 | 樹草 | 秋涼 |

문 6. 다음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밋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 (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 (다)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밋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 (라) 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에서 -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가)에서 슬프든 즐겁든 자신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강직한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화자 스스로의 잘못을 더 뉘우치고 있군.
- ③ (다)에서 임을 향한 뜻을 밤낮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지닌 변함없는 연군의 심정을 느낄 수 있군.
- ④ (라)에서 아버지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군.

문 7.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오류의 유형으로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 등이 종종 관찰된다.

- ① ㉠: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 ② ㉡: 나는 이 일의 책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다.
- ③ ㉢: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 ④ ㉣: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

문 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 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듯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 (중략) …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社稷)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樂天)의 뼈였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 -

- ① ㉠: 황만근은 후세에 그럴듯한 교훈을 남길 만큼 유식하지 못했다.
- ② ㉡: 황만근은 빛만 남는 농사에 고생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 ③ ㉢: 황만근은 공을 남에게 돌려 주워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다.
- ④ ㉣: 황만근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

문 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encoding)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ㄱ, ㄴ, ㄷ, ㄹ …)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임에 반해,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각, 간, 갈 …)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여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조합형으로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19개의 초성, 21개의 중성, 그리고 28개의 종성을 조합하여 나올 수 있는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다. 초기 완성형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의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똥’, ‘헐’, ‘뿔’과 같은 글자는 쓸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이어서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까지 할 수 있다.

- ① ‘똥’, ‘헐’, ‘뿔’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
- ② 유니코드 2.0을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겠군.
- ③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에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겠군.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freedom)’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liberty)’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라면,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속인 강제의 부재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어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해당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은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이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 ② A국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 ③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 ④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11.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등인은 법을 사랑하고, 중등인은 법을 두려워하며, 하등인은 법을 싫어한다.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싫어하지만, 법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가 다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까닭은 형편이 그럴지 못하고 처지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

- 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 ②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다.
- ③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
- ④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계층 통합에 힘쓰는 데 있다.

문 12.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승(女僧)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점(金店)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썩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①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문 13.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컬푸드(local food)는 일차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로컬푸드를 물리적 거리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좁게는 반경 50km, 넓게는 반경 100km의 농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칭하곤 한다. 그렇다면 해서 로컬푸드가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농식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경우 넓게는 반경 160km 정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로컬푸드가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유통·소비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일컫는다.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만나는 접점은 로컬푸드 운동이 발아하는 배경이 된다. 전통적인 농업은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화,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품은 물론 자연 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로컬푸드의 범위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될 수 있다.
- ② 식품 안전성에 주목하는 로컬푸드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③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역 농가가 거대자본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일 수 있다.

문 14.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른바 규중 칠우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벼이니 글하는 선배는 필묵과 조희 벼루로 문방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녀젠들 홀로 어찌 벼이 없으리오.

이러므로 침선(針線)의 뚝은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벼를 삼을새, 바늘로 세요 각시라 하고, 침척(針尺)을 척 부인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 각시라 하고, 인도(引刀)로 인화 부인이라 하고, 달우리로 울 낭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라 하며, 골모로 감도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인네 아침 소세를 마치매 칠위 일제히 모혀 종시하기를 한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일워 내는지라.

일일은 칠위 모혀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자히며 이르되, ... (중략) ...

인화 낭재 이르되,

㉠“그대네는 다토지 마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으며, 혼술이 나곤 아니면 어찌 풀로 불인 듯이 고으리요. 침재(針才) 용속한 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에서 -

- ① 풍자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 1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한국 아이스하키가 북한을 제압,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팀은 13일 쓰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벌어진 동계 아시안게임 아이스하키 최종 경기에서 북한을 6 대 5로 제치고 1승 2패를 마크,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 팀은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뚝뚝 뭉쳐 1피리어드 초반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퍼던 중 3분쯤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세를 높였다.

(나)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6 대 5로 승리, 동계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팀은 13일 삿포로 쓰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열린 북한 팀과의 경기에서 초반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승세를 타기 시작, 한차례의 동점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한국 팀은 이로써 북한 팀과의 대표 대결에서 3승 1패로 앞섰다.

- ① (가)는 ‘제압’, (나)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는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어.
- ②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뚝뚝 뭉쳐’, (나)는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했어.
- ③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경기 전에 한국 팀의 실력이 북한 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표현했어.
- ④ (가)는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확실히 따져 보는 것,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의 자세이다.

우리는 자급심을 충족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이끌었던 소비의 시대에서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몇 세대에 걸쳐 과시적인 소비를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쇼핑이라는 탐험이 사회와 생활 방식에 제공하는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자급심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 패턴과 품목은 가치관과 태도 변화와 함께 바뀔 것이다.

과시적인 소비는 자급심을 향한 인간의 욕구로 주도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비가 가진 함의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아지거나 비정한 자본주의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구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로 갑자기 옮겨 가지도 않는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①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도 소비의 시대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군.
- ②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뜻하는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아닐 것 같군.
- ③ 동물 보호를 위해 가축제품보다 면제품을 사는 경우도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의 예에 해당될 것 같군.
- ④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해서 물건을 구매할 것 같군.

문 17.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판소리 사설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으로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총위가 매우 다채롭다. 그 속에는 기품 있는 한문 취미의 대목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속어가 들어 있으며, 무당의 고사나 굿거리 가락이 유식한 한시구와 나란히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민요, 무가, 잡가 등 각종 민간 가요가 판소리 사설 속에 많이 삽입되었다.

- ① 골계적(滑稽的) ② 연행적(演行的)
- ③ 우화적(寓話的) ④ 적층적(積層的)

문 18.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토록 찾던 그 친구를 오늘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다.
- ② 당시 변변한 직업이 없던 그는 어디든 취업하길 바랐다.
- ③ 칠칠치 못하게 그 중요한 문서를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니느냐.
- ④ 친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문 19. 밑줄 친 부분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우리 집 옆에 있다.
- ② 저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 ③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④ 햇불을 추켜든 사람들이 골짜기를 살살이 뒤졌다.

문 20.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공정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해 공정성을 묻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묻는다. 공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판단의 결과가 가능한 결과들 중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은 ‘공평성’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으로, 이는 관련된 판단들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의 두 조건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은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해 보자.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의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의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독립성이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게임에 사용된 동전이 특별한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되어서 앞면이 두 번 나온 뒤에는 항상 뒷면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두 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뒤에 게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한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될 경우에는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기>

- ㄱ.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 ㄴ.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평하지 않다.
- ㄷ.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클 때, 그 동전을 이용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정하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③	①	①	②	②	③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③	④	④	④	④	②	②

01 ④ 현대문법-형태론: 용언의 활용

④의 '잠가야'는 '잠그(어간)+아야(어미)'의 활용으로서, 어간의 '으'가 탈락한다. 어간의 '으'탈락과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것은 규칙활용이다.

[오답 풀이]

- ① 흐르+어=흘러 → 어간의 '으'가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르불규칙
- ② 파랗+아=파래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 불규칙활용
- ③ 이르+어서야=이르러서야 →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불규칙

02 ③ 현대문법-의미론: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다의어(多義語)는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여러 개의 뜻을 가지는 낱말을 말한다. ③의 '죽다'는 다의어로서, '화초가 죽다'의 '죽다'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 '성질이 죽다'의 '죽다'는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동음이의어'는 소리만 같을 뿐 그 의미에 서로 연관성이 없다.

① 동음이의어

ㄱ 의심하는 눈: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ㄴ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 꽃눈, 잎눈 따위이다.

② 동음이의어

ㄱ 글씨를 쓴다: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ㄴ 존댓말을 써야 한다: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

④

ㄱ 폭풍우가 친다: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게 뿌리다.

ㄴ 가지를 친다: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다의어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단어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소리만 같은 경우를 지칭한다. 예컨대, '배'의 의미로 '舟(배 주)', '腹(배복)', '梨(배나무 이)' 등을 드는데, 이 경우의 각각의 '배'라는 단어들은 동음이의어가 되는 것이고, '腹(복)'이라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하여, 주변적 의미로 '배짱', '욕심' 등을 가지게 될 때, '배'라는 단어는 다의어라고 말한다. 또한 예를 들어 '쓰다'는 '세제를 쓰다, 인부를 쓰다, 사원으로 쓰다, 돈을 쓰다, 힘을 쓰다' 등 모두 '이용하다/사용하다' 등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글을 쓰다', '모자를 쓰다', '맛이 쓰다' 등은 각각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즉, 위의 다의어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라는 뜻에서 전이가 되거나 가지를 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등 중심적인 의미와 그에 따라 파생되고 확장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음이의어'의 경우 소리만 같을 뿐 그 의미에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가 홀로 쓰일 때에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문맥 가운데에 쓰이면 그 뜻이 분명해지므로, 글을 읽을 때에는 문맥 속에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03 ① 비문학-담화: 공감적 대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대화를 나눌 때 공감을 하면 대화 상황이 쉽게 파악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감정이입을 하면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도 있다.

①의 '나'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속이 상하겠구나'라고 하여 감정이입을 하며 공감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안정감을 가져 봐', '머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③, ④ '나'는 '가'의 상황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

04 ① 비문학-논리적 연결 순서

(나)에서 글의 화제로 '인간의 소통 방식-면 대 면 소통'을 제시하고, (라)에서 '면 대 면 소통 방식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가)에서 '면 대 면 소통 방식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지적하고, (다)에서 역접 접속어 '그러나'로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는 결론이 온다.

05 ② 한문-한시: 한자어

제시 글은 1구와 2구, 3구와 4구, 5구와 6구가 서로 대구의 형식이다.

㉠ 1구의 '천고(天高: 하늘이 높으니)'와 대구가 되는 것은 '지후(地厚: 땅이 두터우니)'이다.

㉡ 3구의 '이화(梨花:배꽃)'과 대구가 되는 것은 '수엽(樹葉: 나뭇잎)'이다.

㉢ 6구의 '동한(冬寒: 겨울은 차가우니)'과 대구가 되는 것은 '추량(秋涼: 가을은 서늘하여)'이다.

• 지후(地厚: 地 땅 지/厚 두터울 후)

• 수엽(樹葉: 樹 나무 수/葉 잎 엽): 나뭇잎

• 추량秋涼: 秋 가을 추/涼 서늘할 량): 가을의 서늘한 기운.

[오답 풀이]

①

• 지후(至厚: 至 이를 지/厚 두터울 후): ㉠두께가 매우 두꺼움. ㉡인정 따위가 매우 두터움

• 목엽(木葉: 木 나무 목/葉 잎 엽): 나뭇잎

• 과량(科涼: 科 과목 과/涼 서늘할 량): (×)

③

• 지후(地后: 地 땅 지/后 뒤(임금) 후): (×)

• 수엽(樹葉: 樹 나무 수/葉 잎 엽): 나뭇잎

• 사량(私諒: 私 사사로울 사/諒 살피 알 량): (×)

④

• 지후(地侯: 地 땅 지/侯 제후(임금) 후): (×)

• 수초(樹草: 樹 나무 수/草 풀 초): 나무와 풀

• 추량(秋涼: 秋 가을 추/涼 서늘할 량): 가을의 서늘한 기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출전: 작가 미상의 「추구(推句)」

오언 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 율시(七言律詩) 중에서 뛰어난 구절을 골라 오언 절구(五言絶句)로 변형해 오언 일구(五言一句)로 된 글이 서로 대구(對句)를 이루도록 엮은, 조선시대의 한문 학습서.

- 천고일월명(天高日月明: 天 하늘 천/高 높을 고/日 날 일/月 달 월/明 밝을 명):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 지후초목생(地厚草木生: 地 땅 지/厚 두터울 후/草 풀 초/木 나무 목/生 날 생):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도다
- 춘래이화백(春來梨花白: 春 봄 춘/來 올 래/梨 배나무 이/花 꽃 화/白 흰 백):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고
- 하지수엽청(夏至樹葉青: 夏 여름 하/至 이를 지/樹 나무 수/葉 잎 엽/青 푸를 청):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도다
- 추량황국발(秋涼黃菊發: 秋 가을 추/涼 서늘할 량/黃 누를 황/菊 국화 국/發 필 발): 가을은 서늘하여 누런 국화가 피고
- 동한백설래(冬寒白雪來: 冬 겨울 동/寒 찰 한/白 흰 백/雪 눈 설/來 올 래): 겨울은 차가우니 흰 눈이 내리도다.

06 ② 고전문학-고시조: 종합적 감상

(나)의 초장에서 ‘망녕되다’란 ‘분수에 넘치다.’는 의미이다. 지난 날 이이첨의 행위를 고발한 것이 분수에 넘치는 행위였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지난 행위에 대한 후회나 자책의 의미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만 1수에서 말했듯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의 해를 일으켰기에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어지는 중장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이이첨의 황포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도 남, 즉 임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리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화자가 후회나 반성, 자책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어리다(=어리석다)’는 남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배를 오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남들(=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린(어리석은) 행위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내 몸의 해를 일’은 나라와 임금에 대한 우국충정을 의미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의지의 강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다)에서 주야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의 모습은 임(임금)을 향한 화자의 뜻(=그리움,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는 시냇물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④ (라)에서 ‘외’와 ‘물’은 화자와 대상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단절)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외기러기’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유사하고, ‘울고 울고’란 표현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투영된 감정이 입의 대상이다. 앞서 1수와 3수의 시적 대상은 ‘임(=임금)이었으나, 4수에서는 ‘아버지’로 시적 대상이 바뀌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의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문06]출전: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1.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30세 때 권신이던 이이첨 등의 죄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을 당시에 지은 지은 전 5수의 연시조이다. 제목인 「견회요(遣懷謠)」는 ‘마음을 달래는 노래’ 또는 ‘회포를 푸는 노래’라는 뜻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강직한 성품,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등이 잘 나타나 있다.

2. 핵심 정리

1) 특징

- ①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② 대구법, 반복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2) 구성

- 제1수: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겠다는 강직한 의지
- 제2수: 자신의 결백 호소
- 제3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다짐함.
- 제4수: 부모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

3) 주제: 유배지에서의 정회(情懷)

3. 현대어 풀이

(가) 제1수: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겠다는 강직한 의지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로다.
그 밖의 다른 일이야 걱정할 일이 있으랴.

(나) 제2수: 자신의 결백 호소

내 일이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기도 모두가 임(임금)을 위하기 때문이네.
그 누가 아무리 험뜯더라도 임이 헤아려 주십시오.

(다) 제3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다짐함

경원성 진호루 밖에서 울며 가는(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가?
(저 시냇물은) 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 제4수: 부모에 대한 애달픈 마음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기도 많다.
어디서 외기러기는 슬피 울며 가는가.

07 ③ 현대문법-문장성분의 호응

③의 문장은 서술어 ‘동행하였다’와 호응하는 부사어가 생략된 무장이다. 따라서 ㉠이 아니라 ㉡의 사례이다.

→ 겁이 많았던 나는~못내 무서워 부모님과 동행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주어(내 말의 요점은)~서술어(노력하자)’의 호응이 바르지 않다. ‘~것(정, 일, 말)은 ~점(것, 사실)이다’와 같은 주술 구조가 쓰인다.
→ 내 말의 요점은~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
- ② 서술어 ‘되기’의 보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 ~내가 직접 책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 ④ 서술어 ‘의지하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의지하다’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므로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 한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08 ② 현대문학-현대소설: 인물에 대한 평가

제시 부분은 소설의 끝부분에 나오는 묘지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황만근의 진정한 삶을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은 사람들의 조언에 황만근이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① ㉠: 황만근을 어리석게만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와 상반된 것으로, 황만근은 아는 체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 ③ ㉢: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황만근의 이타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 ④ ㉣: 술을 좋아했던 황만근의 성품을 미화한 표현이다.

※[문08]출전: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 해제: 이 소설은 반편이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통해 농촌의 메말라 가는 인정을 풍자한 작품이다. 남의 비웃음과 놀림에도 개의치 않고 평생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을 위해 살았던 황만근이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된다. 황만근은 언제나 있어도 있으나 마나였지만 갑작스런 황만근의 부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빈자리로 느껴지게 된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의 진면목을 알아본 인물인 ‘민 씨’에 의해 전달되는 그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진정성과 순수성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2. 핵심정리

- 1)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2) 성격: 해학적, 풍자적, 향토적
- 3) 주제: 황만근의 인품에 대한 예찬과 인정이 메말라 가는 농촌 사회에 대한 풍자

3. 전체 줄거리

신대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인 황만근은 전쟁 때 아버지가 죽고 유복자로 태어나 편모 밑에서 자라났다. 지능이 모자라 아이들에게까지 반편이라는 놀림의 대상이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늘 넘어지며, 혀도 짧아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 어느 날 자살 하려는 처녀를 구해 아들 하나를 얻지만, 여인은 곧 떠나 버린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들을 부양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염습과 산역, 마을의 똥구덩이를 파는 율력, 가축도살 등 마을의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공치사를 늘어놓을 재간도 없다. 그는 마을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도 없기도 한 사람으로 모두들 그를 바보라 하지만, 두어 해 전에야 마을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을 알지 못하는 민순정만은 그의 진면목을 안다. 그러던 황만근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다.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던 날 외에는 단 하루도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황만근이 사라진 것이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 황만근의 부재는 곧 자신들의 불편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농가 부채 탕감 촉구를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두들 버스나 트럭, 승용차를 타고 대회에 나가지만, 황만근만은 이장 의 지시대로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궐기 대회에는 참가 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경운기가 논바닥에 처박혀 그 옆 에서 동사(凍死)하고 만 것이다. 결국, 황만근은 없어진 지 일주일 만에 뻘로 돌아온다.

09 ① 비문학-내용 추론

둘째 단락에서, 초기 완성형에서는 ‘똥’, ‘혈’, ‘뿔’과 같은 글자는 쓸 수 없었으나, 이를 보완한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성형으로도 ‘똥’, ‘혈’, ‘뿔’과 같은 글자를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둘째 단락의 끝부분, ‘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 ③ 첫째 단락에서,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영문자는 한글과 달리 조합형이므로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 ④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여 불러오는 방식이므로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10 ④ 비문학-내용 추론

첫째 단락에서,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라면,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속인 강제의 부재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이므로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liberty)’가 제한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셋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liberty)’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② 둘째 단락에서,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liberty)’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freedom)’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첫째 단락에서, ‘리버티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물리적 힘’과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 중에 어느 것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11 ③ 비문학-빈칸 적절한 내용 추론

법을 싫어하는 하등인도 심사가 올바르게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교화를 넓게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12 ③ 현대문학-현대시: 표현상 특징

이 시는 모두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1연)→ 과거(2,3,4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연은 여인과 첫 만남→ 3연은 어린 딸의 죽음 → 4연은 여인이 출가하던 날(머리를 삭발하던 날) → 1연은 여승과 자아의 재회를 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④책형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① 가지취(취나물의 일종), 산, 옥수수, 썬별(재래종 일별), 도라지꽃, 산쟁, 산절, 마당귀(마당의 한쪽 귀퉁이)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3연에서 도라지꽃은 청색(청보라색)으로, 죽음의 차가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2연의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는 청각(울음)의 촉각화(차게)로, 공감각적 표현으로 슬픔의 정서를 강조한 것이다.

※[문12]출전: 백석, 「여승(女僧)」

1.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그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연은 여승이 된 현재 모습이며, 2~4연은 여승이 되기까지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여인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으며, 농촌이 몰락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흩어지는 당대의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구성: 역순행적인 것으로서 1연에서는 여승의 현재, 2~4연에서는 여승의 삶의 궤적(軌跡)을 나타낸다.
 - 1연: 여승과 자아의 재회
 - 2연: 여인과 자아의 첫 만남
 - 3연: 지아비의 가출과 어린 딸의 죽음(여인의 비극적인 삶)
 - 4연: 여인이 출가하던 날(머리를 삭발하던 날)
 - 2)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13 ④ 비문학 내용 추론

둘째 단락에서,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전성의 위기, 인구 감소, 농촌 경제영세화, 거대자본의 위협, 농약의 과다 사용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로컬푸드 운동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로컬푸드의 범위는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둘째 단락에서,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로컬푸드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③ 둘째 단락의 끝부분에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이라는 설명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 ③ 고전문학-고전수필: 내용 이해

인화 낭자(인두)가 "나곤 아니면 어찌 풀로 불인 듯이 고으리요.~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통해 세요(바늘)의 공아 빛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내면의 갈등이 아니라 인화 낭자가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 ②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는 충고가 아니라 세요의 공이 자신의 도움으로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14]출전: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閔中七友爭論記)」

1. 해제: 이 작품은 규중 부인이 바느질에 사용하는 '자, 가위, 바늘, 실, 굴무, 인두, 다리미'를 의인화하여 인간의 심리 변화와 이해관계에 따른 세태를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각각의 바느질 도구를 척 부인,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백 각시, 감토 할미, 인화 부인, 울 낭자 등 구체적 인물로 설정하여 생김새와 쓰임새를 생동감 있게 그려 내었다. 이 작품은 규중 칠우들이 공을 다투는 부분과 인간에 대한 원망을 하소연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전반부에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지만 후반부에서는 규중 부인, 즉 인간을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자랑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과 직분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형식: 고대 수필, 한글 수필
 - 2) 성격: 교훈적, 논쟁적, 풍자적, 우화적, 계세적
 - 3) 표현: 의인법, 풍유법
 - 4) 주제: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의 추구

15 ④ 비문학-표현상 특징 비교

(가)의 '3위에 입상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 팀은 초반부터 파상적인 공격,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세'를 높여 북한을 제친 것이다. 따라서 아쉬운 경기의 결과가 아니다. (나)에서도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동메달을 획득했다~승세를 타기 시작~경기를 끝냈다'는 것이므로 아쉬운 경기의 결과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제압(制壓)은 위력이나 위엄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는 '제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힘으로 억눌렀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 ② (가)는 선수들이 '필승의 정신력으로 푼돌 뭉쳐' 공격을 펼쳤다는 것이므로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③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팀, (나)는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것이므로 (가)와 (나) 모두 경기 전에 한국 팀의 실력이 북한 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다.

16 ④ 비문학- 내용 추론

셋째 단락에서,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즉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도 고려한다는 것이지,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에서, 우리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맞고 있다.~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으므로,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도 소비의 시대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2020. 09. 2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②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은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이기적 이타주의의 자세'와 관련이 없다.

③ 동물 보호를 위해 가죽제품보다 면제품을 사는 경우는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라고 할 수 있다.

17 ④ 고전문학-판소리의 성격

빈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는 것이다. 판소리는 구비문학이다. 구비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처음의 원본과는 달리 없었던 내용들이 쌓이고, 여러 층위의 언어가 다양하게 섞인다. 그래서 판소리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지는 적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골계적(滑稽的):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
- ② 연행적(演行的):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행하는 것
- ③ 우화적(寓話的):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것.

18 ④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④ 안절부절하는 →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를 의미하는 동사는 '안절부절하다'가 아니라 '안절부절못하다'이다. 참고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는 '안절부절'이다.

[오답 풀이]

- ① 우연하지 않게→우연찮게
어미 '-하지' 뒤에 '않 -'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참고] 우연히 만나다/우연찮게 만나다
'우연히'는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라는 뜻으로, '우연히 만났다'처럼 쓰인다. 그리고 '우연(偶然)+하--지+아니+하-'에서 온 '우연찮다'의 활용형 '우연찮게'는 "꼭 우연한 것은 아니나 뜻하지도 아니하게"라는 뜻으로 '우연찮게 만났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즉 '우연히'와 '우연찮게'의 단어 형성 과정을 볼 때, 둘은 그 의미가 달라야 할 것이나, 실제로 '우연히'와 '우연찮게'는 '뜻하지 아니하게'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별 차이 없이 쓰인다.
- ②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는 뜻의 형용사로서 적절하게 쓰였다.
- ③ '칠칠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면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치 못하다'처럼 쓰인다.

19 ② 현대문법-통사론: 관형절의 성격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관형절로서, 뒤에 체언을 수식한다.
동격관형절은 수식받는 체언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을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관형절이다. 관계관형절은 성분 중 하나가 생략되는 관형절로서, 수식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일부 성분인 경우이다.
②의 관형절은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다'의 구성으로 모든 문장성분을 갖추고 있는 동격관형절이다.

[오답 풀이]

- ①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사다 수식받는 체언 '서점'이 관형절의 생략된 부사어이므로 관계관형절
- ③ 이마에 흐르는 땀을 ~ → 땀이 이마에 흐르다 수식받는 체언 '땀'이 관형절의 생략된 주어이므로 관계관형절
- ④ 햇불을 추켜든 사람들이 ~ → 사람들이 햇불을 추켜들다 수식받는 체언 '사람들'이 관형절의 생략된 주어이므로 관계관형절

20 ② 비문학-내용 추론

②

ㄱ: 셋째 단락에서,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게임에 사용된 동전을 특별한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해서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게임은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공정한 게임, 즉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은 독립적인 것이다.

ㄷ: 둘째 단락에서,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의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크다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풀이]

ㄴ: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둘째 단락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하므로 공평한 것이다. 다만,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므로 셋째 단락에서 말하는 독립적이지는 못하므로 공평하지는 않다.